

광주·전남 ‘나홀로 가구’ 무려 30만

독거노인 급증...주거·일자리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30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을 위한 주거·일자리·복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 전체 가구(67만1758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8만9671가구(28.2%)로, 경북에 이어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5년 전 1인 가구 비율(24.6%)에 견줘 무려 3.6%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 사는 셈이다.

특히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2010년 9월 기준)이 11만8200명인 만큼 1인 가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목포(2만3483가구), 여수(2만2688가구), 순천(2만1405가구), 광양(1만1403가구), 고흥(1만506가구) 등이 1인 가구가 많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신안 36.7%(5805가구), 고흥 35.7%(1만506가구), 곡성 35.4%(4065가구), 보성 35.4%(6308가구) 등이다.

통계청은 전남의 1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도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가 급증, 1인 가구 비율이 23.4%에 달했다. 전체 51만3871가구 중 12만128가구가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율로만 놓고 보면 5년 전 19.0%이던 데 비해 4.4%포인트가 증가해 경북(4.5%)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가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차별받기 일쑤다. 경기 전체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결혼할 임무를 내지 못하는 독신자 등도 많지만 임대주택 입주나 세금 공제 혜택 등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들을 위한 소

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고독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과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개혁특위 광주·전남 공청회

“공천률 빨리 확정하고 현역 대폭 물갈이해야”

민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차기 총선 공천률을 조기에 확정하고, 야권연대를 대비한 인물 영입과 세대교체, 현역의원 물갈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우체국보통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광주·전남 개혁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공천방식을 개방화·다양화하고, 공천원칙을 조기에 확정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선수 위주로 공천률이 자주 바뀌다보니 공천 잡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공천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천방식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더 경쟁적인 공천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선후배 전남대 교수는 “그동안 많은 공천제도 변화를 통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했지만, 여전히 관료주의와 인지도·지명도 높은 인물이 공천을 받는 구조였다”라며 “보다 더 정교한 공천제도를 만들어 지명도가 낮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이어 “민주당 중심의 포괄적인 야권통합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

지만, 1대1 정치지형을 만들게 되면 날치기·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정치 양극화가 불가피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연합이나 정치연합 형태가 더 낫다”고 밝혔다.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도 “내년 총선 공천은 야권연대를 대비해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연대 없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고,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인물 영입론을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내년 공천은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고, 세대교체와 물갈이도 있어야 한다”며 “국민참여경선이 취지는 좋지만 인지도 중심의 경선이 되고, 개혁공천이 안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선 공천률은 조기에 확정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올 3월,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호남권 중진의원 물갈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고,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를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구에 15% 이내에서 무공천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게 돼 있다”며 “당 지도부가 통합, 연대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흑한 속 공중기동훈련

2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605헬기대대와 31사단 진도대대 장병들이 흑한속에서 공중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영암군 대불대 인근 들판에서 펼쳐진 이 훈련에는 코브라 헬기2대와 UH60헬기 7대가 동원됐다.

전남 양식어가 한파 피해 속출

수온 급강하...여수·고흥·영광 수백만 마리 폐사

한 달 가까이 계속된 한파로 바닷물의 수온이 떨어지면서 양식 어류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을 뒤덮은 한파로 수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여수·고흥·영광의 양식장에서 돌·뱀장어 수백만 마리가 폐사했다.

여수의 경우 돌산읍 군내리와 남면 화태도, 화정면 월호도 등 양식장 94곳에서 참돔과 감성돔 등 돌류 400만 마리가 폐사했다.

현재 양식 중인 여수 전체 돌류 1531만2000마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 금액만 28억원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돌류의 경우 통상 해수온도가 평균 섭씨 7도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이번 한파는 이들 지역 양식장 수온을 평균 4.5도에서 최고 2.2도까지 급강하시키면서 참돔에 취약한 돌류의 집단 폐사를 가져왔다

특히 여수에서는 지난 2000년 돌류 282만4000마리가 수온이 낮아지면서

폐사, 22억원의 피해를 냈고 2003년 247만8000마리(19억원), 2006년 737만5000마리(80억원) 등 저수온에 따른 피해가 반복돼왔다.

여수시도 반복되는 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수온에 약한 돌류 양식을 줄이도록 계도해왔으나 다른 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탓에 어민들이 돌 양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실정이다.

고흥에서도 금산면 2곳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감성돔 30만마리(3억원 상당)가 동해로 폐사, 고흥군이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영광의 백수읍 등 뱀장어 양식장도 한파로 얼어붙으면서 2만4000마리의 뱀장어(6.4t)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현재의 저수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근 해역으로 확산, 다른 양식어류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어민들을 상대로 조기 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수습을 통한 관측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출하가 곤란한 최근 임식 어류도 적지 않은데다, 일부 어가는 임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 MBC 문화탐방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MBC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방콕·앙코르왓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2011. 1. 30 ~ 3. 27 (총 17회)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71-31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3, 10,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1월 30일 / 2월 6, 13,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 포함 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교통비 ● 불포함사항: ● 기차/가이드 팀 전 일정 US\$30~40/인 별도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황세, 전정보행료, 1인원 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68,000원 (상인/아동 동일)
● 입국비 및 전정보행 2시간 1회 포함 ● 캄보디아 육로 비자 비용 별도 \$53/인 - 사전에 지참요
● 특식 (태국식-사프리카, 수제, 호텔내부, 한식-삼겹살) ● 골프장부대경비 - 골프장에 따라 캐디피, 전동카트, 캐디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 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